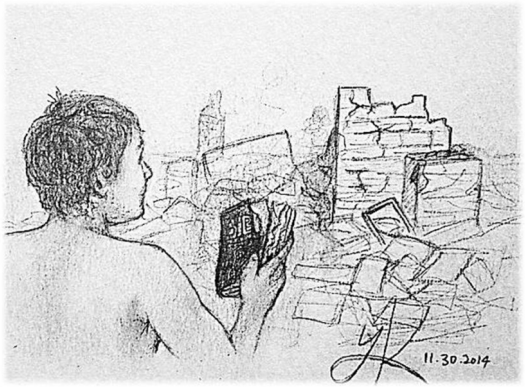


"그리스도(인), 세상의 희망!"

깊은 열대 정글에서 오로라가 반짝이는 북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정말 찬란하게 빛납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를 갖고 사는 인류는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한 목소리로 또 화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자연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동정어린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확고한 희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 온 창조계가 신음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허영을 꿰뚫고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부패와 종국에 맞게 될 영원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음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극심한 핍박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들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희망입니다. 그들을 정복한 자들을 되려 정복하기(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8:37).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데 대가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한 선을 이뤄내십니다.

스티브와 졸렌 (가명) 선교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떡하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반군 세력이 마을에 들이닥쳐 번역 센터를 불태우는 바람에 도시에 있는 본부로 피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망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반군을 도와 그들을 번역 센터로 인도하고 탈취와 방화를 도운 사람이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진 타다 만 성경을 슬쩍 주머니에 주워 넣었던 것입니다. 상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번역 센터가 전소 된지 2년 만에 스티브와 졸렌은 리카르도에게서 장거리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리카르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리카르도는 그날 오전 성경 과목 시간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스티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바로 반군 세력을 인도해 들여 노략과 방화를 하도록 도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와 졸렌은 사역한 후 처음으로 현지인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이 언어의 성경번역에 주사역자가 되어서, 신약성경 초벌 번역본을 다듬어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불탄 집… 모든 자료 전소… 불덩이 속에 던져진 30년의 사역…타다 남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영원히 구원받은 영혼!

(pp.52-53, *The Power of the Word*, compiled and edited by Luci Tumas and Patrick Wilson)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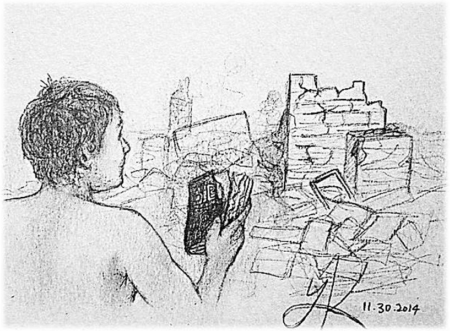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11/27 (주일)	11/28 (월)	11/29 (화)	11/30 (수)	12/1 (목)	12/2 (금)	12/3 (토)
고후 5-8	고후 9-11	고후 12-13	롬 1-3	롬 4-7	롬 8-10	롬 11-14

위클리프 캐나다는 성경읽기를 통해 캐나다 내의 교회들이 살고, 동시에 기도와 1절 1센트 헌금을 통해 선교지의 성경없는 부족을 축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클리프 캐나다로 연락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Christ(ians), Hope of the World!"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eun Kim

From the deep tropical jungles to the sparkling Northern Lights, God's creation is glowing grandiosely. The beauty of His work can be best seen in all the diverse peoples and languages, reflecting His creation with their colorful cultures. All creatures should praise in unison and harmony, "How great art thou, the Creator!"

However, they are all groaning on the inside. God's people tuned with the Holy Spirit can look deep into people's hearts and the natural world, and pray with groaning that words cannot express. But this prayer is not just full of sympathetic sorrows but with profound hope as well.

St. Paul revealed that all of creation, humans included, are groaning. He saw through the glory of Roman Empire and realized the depravity and eternal death to which they were destined. Christians were also groaning not because they were unsaved, but because they were under severe persecution.

But there is hope. Jesus is the hope for those who needs salvation as he died for their redemption and rose again for their eternal life. Christians are hope, even for those who persecute them. They overcome any sufferings and persecution as they are more than conquerors (8:37). The Holy Spirit helps our weaknesses and even "prays for us with groaning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26, *NLT*). That is why there is hope.

"And we know that God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em" (Rom 8:28, *NLT*). In fact, God is the master of fixing things for us. Even in the worst possible situations, he so skillfully uses the circumstances to create good things for us.

Steve and Jolene did not know how God would do with their translation ministry when a group of subversives burnt down their translation house in the village and they had to be evacuated to the centre in a city.

But in this hopeless situation, God sowed the seed of the gospel into the heart of a man who had led and helped the subversives loot and burn down the translators house. He saw a Bible that had survived the fire lying on the ground. He slipped it into his pocket and read it later. As you can imagine, God changed his life.

Two years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translators home, Steve and Jolene received a long-distance telephone call from Ricardo. Tears welled in Steve's eyes as he listened to Ricardo's story. Ricardo explained that in his morning class [in the seminary] he had received Jesus as his Saviour. Ricardo then asked Steve for forgiveness for accompanying the subversives and helping them loot and burn the house.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anyone from the local community had asked Steve and Jolene for forgiveness.

Ricardo became one of the major national translators for the language and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vising the rough draft of the New Testament and finishing it.

A house destroyed... everything burned... a thirty year village ministry up in flames... a New Testament remained... the power of God's Word... a soul now saved for eternity!

(pp.52-53, *The Power of the Word*, compiled and edited by Luci Tumas and Patrick Wilson)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Sun, Nov 27	Mon, Nov 28	Tue, Nov 29	Wed, Nov 30	Thu, Dec 1	Fri, Dec 2	Sat, Dec 3
2Co 5-8	2Co 9-11	2Co 12-13	Rom 1-3	Rom 4-7	Rom 8-10	Rom 11-14

Wycliffe Canada has started a Bible reading movement through which churches in Canada can be revived and those people groups who do not have the Bible can be blessed by the prayers and offerings of the participants, a cent per verse. Please contact us if you want to join. rbbb@wycliffe.ca 416-888-2262